

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대응(3보)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28일(화) 22:15분경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(부산-홍콩, HL7763, A321) 여객기 화재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탑승객 3명 경상*과 항공기 1대가 반소되었다고 밝혔다.

* 부상자 3명(모두 여성) : 50대, 60대, 70대 각 1명

- 경상자 3명은 허리통증, 팔다리 타박상, 대퇴부타박상 등 증상으로 좋은 삼성병원(50대), 서부산센텀병원(60대), 법천센트럴병원(70대)으로 이송되었으며, 그 중 2명(50대, 60대)은 진료 후 귀가하였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항공기 주기장 40개 중 사고항공기 주변의 주기장 3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으며, 1.29일(수) 계획된 항공편*(271편) 들은 정상 운항하고,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.

* 1.29 계획된 279편 중 271편은 정상운항, 에어부산 8편은 결항조치

- 한편, 현장에 파견된 국토교통부·사조위 관계자는 경찰·소방 등과 협의하여 사고 원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며,
- 조사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결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44)
			사무관	조종관 (044-201-4254)